

개학 후 '학생 확진' 누적 100만 넘어

15~21일 유·초·중·고 학생 37만9983명 확진 초등생 53.5% 최다...교직원 3만2117명 감염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 속 개학 3주만에 유·초·중·고 학생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 교직원 확진자 수는 9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99%의 학교가 등교를 유지하고 있지만 감염 확산에 학교 현장의 부담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23일 교육부가 공개한 각급 학교 학생, 교직원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학생 105만9818명, 교직원 8만5791명이다.

확진자 수 폭증으로 집계가 늦어지면서 14일 이전 발생한 학생 7만3714명, 교직원 5301명이 추가 반영됐다. 지난 15~21일(3월 3주차) 학생 37만9983명, 교직원 3만21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주간 학생 확진자는 2월 4주 14만3078명, 3월 1주 27만1416명, 3월 2주 40만8419명, 3월 3주 37만9983명이다. 지난주 확진자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집계가 늦어 추후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확진 여부를 학부모들이 기록하게 되는데, 확진 당일 경향이 없어 집계

가 늦어지고 있다"며 "늦게 집계되는 학생 확진자 규모를 포함하면 이번 주 발생한 확진자가 50만명 내외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학생 확진자 중 초등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연령층을 포함한 5~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오는 31일 본격 시작된다. 15~21일 집계된 학생 중 초등학생이 20만3123명으로 전체 53.5%를 차지한다. 이어 중학생 8만1231명(21.4%), 고등학생 6만8005명(17.9%), 유치원생 2만5771명(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16만6386명으로 43.8%, 비수도권이 21만3597명으로 56.2%를 차지했다. 전면 등교한 학교 수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전체 2만326개교 가운데 1만8197개교(89.5%)로 파악됐다.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 1982개교(9.9%)를 합하면 전국의 유·초·중·고 99.3%가 등교 수업을 운영했다.

전면 원격수업 학교는 119개교로 1주일 전 180개교와 비교해 수가 줄었다. 교육부가 학교 자율로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많은 학교가

돌봄, 학습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전체 학생(587만1337명)의 15.3%에 해당하는 90만1208명이 학교에 가지 못했다. 자가진단 앱을 통해 등교 중단 통보를 받은 학생은 28만2091명이다. 나머지는 확진 또는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다.

자가진단 앱에서는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면 등교 중단을 안내한다. 참여율은 지난 10일 87.9%, 11일 86.4%, 14일 88.1%, 17일 85.1%, 18일 84.2%, 21일 87.2%로 80%대 수준을 보인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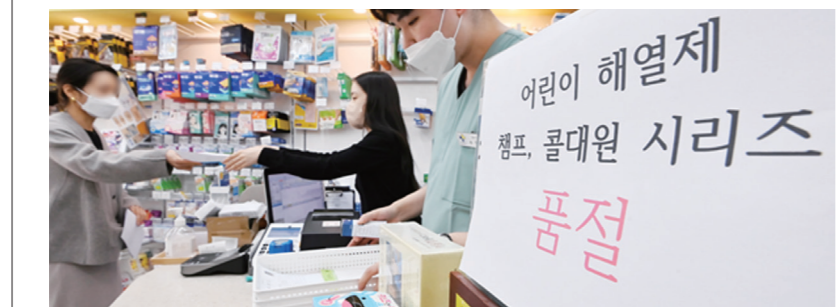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



'3일만 쉬고 나와라, 확진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라고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의료체계 붕괴 현장실태 증언 및 노경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열제·감기약 '품귀'...상비약 공급량 늘린다

재택치료자 늘면서 상비약 수요 급증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졌던 해열제·감기약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박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해열진통제와 기침약 등 상비약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과 수입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늘어나면서 증상 완화에 도움 되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상비약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럽형 해열진통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등 약국과 제약업체에서 수급난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상비약 생산과 수입을 확대하고, 신속한 출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수급난이 심각해질 경우 국내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성분의

외국 의약품을 긴급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장관은 "생산업체 대상 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약품 처방, 조제, 판매 등 전 과정에서 적절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은 최근 의약품 생산 현황을 방문해 공급 확대를 당부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식약처로부터 상비약 수급 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식약처는 허가 등 행정 절차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의약품이 시중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약업체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적정량 처방 및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방역완화, 확진자 폭증 지적에...정부 "전면 유행 한 번은 겪을 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방역 완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그 과정에서 오미크론 변이 대응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조치 완화가 확진자 급증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 같다. 단 순히 그렇게 지적하기엔 단편적인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손 반장은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비판은 다시 말해 금년 초까지 유지해왔던 '사적모임 4인·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9시' 및 '확진·접촉자 14일 격리'를 유지했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이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순간부터 이변과 같은 전면적인 유행을 한 번은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월부터 확진자 억제에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쪽으로의 방역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다"면서 "4인·밤 9시와 광범위한 격리 유지는 효과성 측면을 차지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약 2~3배 전파력이 더 강한 특성이 있기에 기존의 확진자 억제 정책 수단들의 효과가 미흡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면서 "다시 말해 델타 변이 때처럼 확진자 억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유행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현재 확진자 억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들며 "오미크론 자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방식(억제 고수)이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고 그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어서도 회의적"이라고 했다.

최이슬기자



강진경찰서 2022년 주요업무 및 성과향상보고회

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지난 21일 3층 어울마당에서 각 실·과장·계·팀장 및 자·파출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치안종합성과 향상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나주경찰, 공동체 치안 협력 유공 CCTV 관계요원 감사장 수여

나주경찰서장(총경 김선우)은 2022년 3월 16일 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CCTV 관제센터)에서 공동체 치안 협력에 기여한 관계 요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보성경찰, 봄철 해빙기 교통안전시설 특별 점검 실시

보성경찰서에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오는 20(일)까지 보성군청과 합동으로 도로 주변 옹벽·축대 등 붕괴로 인한 교통안전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순천경찰, 신학기 아동 성범죄 예방 점검 활동 전개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운)는 신학기를 맞아 순천지역 초등학교 42개교와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18개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성범죄 예방 점검 활동을 2주간 펼쳤다.



진도군 의용소방대,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진도군 의용소방대원 15개대 363명이 철쭉산 등 주요 등산로에서 산불발생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완도해경,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봄 행락철 해상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중이용선박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